

등·학교 함께 연습하며 자신감 심어주세요

우리 아이 초등 입학 가이드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받은 엄마들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까', '엄마와 떨어져도 잘 지낼 수 있을까', '화장실은 잘 다녀올 수 있을까' 등 불안하기만 한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답답하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초등학교 1학년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시기다. 학교는 이전까지 경험한 어린이집·유치원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 부모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도 필수적이다.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앞두고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지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계획표 대로 규칙적 생활 훈련

학용품 선택은 안전 고려해야

학교생활·성취도 온라인 공개

Q. 처음엔 아이와 함께 등·학교해야 하나요.

A. 입학 전, 미리 등학교 연습을 해서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까지 등학교를 함께 해주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Q. 입학할 날,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A. 간단한 필기도구, 예방접종 확인서, 가방, 실내화는 미리 준비하세요. 입학식 날 계산판에서 자녀 반 확인하세요. 동명 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보호자명을 확인하세요. 담임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나눠주는 유인물도 잘 챙겨야 해요.

Q. 가방, 실내화는 어떤 종류로 구입하면 좋을까요.

A. 내용물을 빼기 쉽고 책상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위쪽에 있는 가방이 좋아요. 실내화는 장식이 많이 붙어있거나 벗겨지기 쉬운 것은 피하세요. 필통은 연필, 지우개, 작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책상 아래로 떨어졌을 때 깨지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연필은 지우개가 달리지 않은 2B연필을 골라 미리 3~4자루 정도 깎아서 필통에 넣어주세요. 알림장, 받아쓰기 공책, 종합장, 일기장, 칸공책(8칸, 10칸)은 미리 사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게 좋아요.

Q. 교과서는 언제 받나요.

1학기 교과서는 3월 중순 이후, 2학기 교과서는 1학기 말에 배부됩니다. 교과서를 받으면 반드시 이름을 쓰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을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잘 말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학부모들 걱정이 산더미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지 교육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최근 광주 서구 유촌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가한 초등학교 신입생이 선생님과 상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학용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책가방 -내용물 빼기 쉽고, 잠금장치가 복잡하지 않은 것 -책상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위쪽에 있는 것
	실내화 -가볍고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리한 것 -장식이 많이 붙어있거나 커서 벗겨지기 쉬운 것은 신지 않기
	필통 -연필, 지우개, 작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떨어졌을 때 깨지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연필 -지우개가 달리지 않고 심이 약간 무르고 굵은 2B연필 -집에서 연필 3~4자루 정도 깎아서 필통에 넣어오기
	공책 -알림장, 받아쓰기 공책, 종합장, 일기장, 칸공책(8칸, 10칸) 등은 학교 및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기

Q. 입학하면 뭘 배우나요.

3월에 접할 1학년 첫 교과서는 ‘신나는 학교생활’과 ‘학교 1’입니다. ‘신나는 학교생활’을 배우면서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기르고 ‘학교 1’은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3월 주제 교과서입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190일 이상, 매일 4~5교시 가량 수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Q. 등학교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A. 너무 이르거나 늦은 등교는 위험할

수 있으니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승용차로 등교할 경우 주변 교통 혼잡을 초래하니 피하세요. 매일 알림장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Q. 아이가 야과 학교에 보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주세요. 전화로 연락을 취하신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자녀 상태를 살펴 등교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질병결석 처리를 위해 자녀가 등교할 때 약봉투, 병원 처방전, 진료 확인서

등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Q. 아이가 숙기가 없어서 남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아 걱정이에요.

A. 의사 표현에 자신이 없으면 학교 생활 적응에 힘들어합니다. 매일 자녀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하면서 의사표현력을 길러주세요.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겠고, 수업 시간에 공금하거나 모르는 것은 당당하게 질문하도록 알려주세요.

Q. 오래 못 앉아있는데 선생님에게 혼날까 고민입니다.

수업 시간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모두 힘듭니다. 집중성을 길러주고 계획표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습활동 상황, 성취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합니다.

Q.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선생님과는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요.

A. 선생님이 자녀 특성을 파악한 3월 말 이후에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생활이 공금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으면 상담하세요. 수업 시간 대신, 방문 시 미리 약속을 정해 상담하세요.

Q. NEIS 학부모서비스로 자녀 학교생활 알 수 있다면서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진로 상담 자료, 성적통지표, 건강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정보, 학교생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선생님과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습활동 상황, 성취 정도 등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고1부터 ‘학종’ 준비 차곡차곡

<학생부종합전형>

동아리·경시대회 일정 챙겨야

고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모집 비율을 크게 확대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고 1부터 체계적인 진로·학습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부 전형의 확대는 내신 뿐 아니라 독서, 동아리·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전공,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 1 때부터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학생부에 담아내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고 1 입학을 앞두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 보고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이후 독서, 봉사활동, 소논문, 방과 후활동 등도 주제를 잡아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 있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학교 홈페이지는 경시대회, 글쓰기

대회, 인문학 특강, 논술 대회 등 배정 받은 고교의 1학년 학사 일정이 담겨 있어 한 해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고교 배정 뒤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알찬’ 학생부를 꾸리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앞서 사전 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수상 경력을 기록하도록 했고 소논문 활동도 학교 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한해서만 적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 수업(7교시) 이후 강제성을 띠는 8·9교시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한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부족한 교과 보충을 위해 사교육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학생부가 학교 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한해서만 기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 수업 이후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동아리활동, 소논문 활동, 자율적 탐구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취업 경쟁력·발전기금 확대 총력



동강대가 대학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동강대는 최근 ‘2017학년도 운영계획 발표회(사진)’를 잇따라 갖고 발전 방안 및 위기 타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22개 학과를 대상으로 한 데 이어 최근 대학 부서별 발표회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200명(2015년 1548명 → 2017년 1348명) 줄어든데다, 등록금마저 동결되면서 겪고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됐다.

당장,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한 발전기금 확대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대학 교수·직원들이 지난달 말 2억원이 넘는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것 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또 수도권 집중화 속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취업난 해소를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평생 지도교수제’ 활성화 등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교별로는 스마트인양공과 등 신설 특성화과에 대한 홍보 방안과 중원을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3년안에 승부 납니다!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